

# 월간 실적보고

## 2018.09

### Summary of 2018 Sep

#### 1. 해외여행상품 (패키지+티켓+단품) **-14.0% YoY**

- 해외 총 송객인원과 단품 (입장권, Pass 등)을 합산한 수치

#### 2. 해외 총 송객인원 (패키지+티켓) **-2.8% YoY**

- 패키지 **-2.9%** / 티켓 **-2.7% YOY**

(10.9만명 / 10.5만명)

#### 3. 지역별 송객인원 증감 (YoY)

- 중국 **+26.0%** 유럽 **+5.5%**

- 동남아 **-2.3%** 남태 **-12.4%** 일본 **-22.2%** 미주 **-35.5%**

#### 4. 예약률 (YoY)

- 10월 **+9.6%** 11월 **-4.6%** 12월 **-15.3%**

## 9월 Review : 해외여행상품 (패키지+티켓+단품) YoY -14.0%

**해외 총 송객인원 (패키지+티켓) YoY -2.8%, 송객인원 21.4만명**

**패키지 인원 YoY -2.9%, 10.9만명.** 두 달 전인 7월을 저점으로 소폭이지만 성장률 꾸준히 개선 중.

(7월 -6.9% → 8월 -3.8% → 9월 -2.9%) 9월은 플러스 성장 기대되었으나 일본의 자연재해 등의 영향 받음.

**티켓 인원 YoY -2.7%, 10.5만명.** 지난 2018년 7월부터 송객인원 10만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으며 성장률 또한 7월을 기점으로 점차 개선되는 상황.

## 9월 실적

(단위 : 명, %)

	패키지	티켓	총 송객인원
2018	108,703	104,818	213,521
2017	111,960	107,753	219,713
YOY	-2.9	-2.7	-2.8

**패키지 YoY :** 2018년 7월 -6.9% → 2018년 8월 -3.8% → 2018년 9월 -2.9%

**티켓 YoY :** 2018년 7월 -13.0% → 2018년 8월 -6.0% → 2018년 9월 -2.7%

**총송객 YoY :** 2018년 7월 -10.0% → 2018년 8월 -4.8% → 2018년 9월 -2.8%

## 지역별 성장 (YoY)

**중국 +26.0% 유럽 +5.5% 동남아 -2.3% 남태 -12.4% 일본 -22.2% 미주 -3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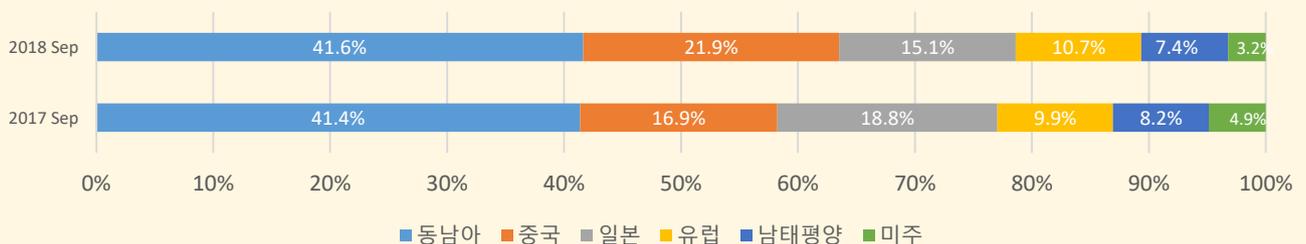
**중국 +26.0%**, 최근 6개월 평균 42%. 볼륨 뿐만 아니라 근거리 지역 중 가장 높은 ASP와 ASP YoY 기록.

**유럽 +5.5%**, 전년의 높은 기저(High Base)(YoY +44%)에도 성장 지속. 장거리 지역 볼륨의 절반 담당.

**동남아 -2.3%**, 지난 8월 YoY -10% 를 저점으로 반등 중.

**일본 -22.2%**, 6월 말 시작된 자연재해의 영향권에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자연재해 발생으로 부담 가중. 일본에 집중된 자연재해의 영향으로 기대했던 양(+)의 성장을 달성하지는 못함. 그러나 전체적으로 지난 달 대비 비슷하거나 개선되는 모습들이 나오며 8월 대비 개선된 성장성 보임.

## 인원 비중



### 예약률 증감 (PKG)

(단위 : %)

	2018년 10월	2018년 11월	2018년 12월
예약률	9.6	-4.6	-15.3

\* 2018.09.30 기준 국내 포함 모객 현황 / 전년 동일 기준시점까지의 누적 모객 비교 (YoY)

**4분기 전체 예약율**은 계속되는 일본의 자연재해로 인해 신규예약이 감소하면서 부정적 영향을 받음. 출발 시점이 가장 가까운 10월에 가장 큰 영향. 하지만 7월을 저점으로 지속되고 있는 수요회복 흐름 유지.

**10월 양(+)**의 성장 지속. 중국과 유럽이 성장 주도. 더불어 그동안 다소 부진했던 남태평양 지역이 성수기인 겨울철을 맞아 개선되는 모습 보일 것으로 기대.

**11월과 12월은 음(-)**의 성장. 11월과 12월은 음(-)의 성장. 전년 동일시점과 비교 시 각각 53%와 74%의 높은 기저(High Base) 부담. 겨울은 전통적으로 일본과 동남아가 각광받는 시기. 차츰 일본과 동남아 수요에 악영향을 주었던 자연재해 (태풍 홍수 지진 등)의 영향에서 벗어나면서 예약률 개선 기대. 더불어 중국이 반년이상 보여주고 있는 높은 성장성이 유지되면 예약률은 더욱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